# 2000년을 맞는 나의 牧會

서 정 오
(목 사, 양 정 교 회)

1990년까지만 해도 成長率이 10% 이상 되던 韓國敎會(특히, 改新敎)가 그 以後에 들어서면서 91년 5.8%, 92년 4.0%로 急降下되고 있다는 統計가 發表되었다.[1] 어느 基督敎新聞에 의하면, 1992년도의 敎會 數는 1991년에 비해 오히려 오백여 敎會가 줄었다. 成長하는 敎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대部分 다른 敎會에서 轉入해 오는 境遇가 많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신자 增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全國 여러 곳에서 으리으리한 大型敎會 建物들이 지어지고 있는 중에, 얼마전 배달된 뉴스위크지에 英國의 많은 유서깊은 禮拜堂들이 維持는 커녕 保守할 能力조차 없어서 타 宗敎의 集會場所로, 혹은 藝術 作業場으로, 혹은 이민족들의 공회당과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는 뼈아픈 소식을 읽으면서 韓國敎會의 未來에 대한 일말의 어두운 생각을 해 보았다.[2] 오늘날 韓國敎會 指導者들은 英國牧師 Canon Greem의 警告를 深刻하게 들어야 한다.

---

1. 基督敎교문사 간행, 1993년도 基督敎 연감에 의하면 1990년 개신교 신자수는 11,427,485명으로 연평균 10.8% 成長, 1991년에는 12,091,837명으로 연평균 5.8%, 1992년에는 12,571,062명으로 연평균 4.0%로 나타났다.
2. 韓國 基督敎 학술원 원장인 이종성 박사는 크리스챤 저널 지령 백호기념특집의 글 '韓國敎會 21C를 조망한다'에서 다른 이들의 견해와는 달리 韓國敎會의 未來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展望하고 있다.

'50년전만 해도 英國敎會는 지금의 美國敎會들 처럼 교인들로 超滿員을 이루고 있었다. … 그러나 지금 英國敎會는 비어 있다.… 美國敎會가 지금은 滿員들이지만, 그대신 平信徒의 聖經的 깊이라 할까, 아니면 영적인 깊이라 할까 하는 그것이 결여되고 있다. 信仰이 그들의 생활에 뚜렷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感傷的인 主日行事가 되어 가고 있다. 만일 여기에 어떤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반세기 후에는 英國敎會와 같이 美國敎會도 텅비고 말 것이다.'[3]

100년전 이 땅에는 20,0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전(全) 2,000만 同胞의 希望이요, 빛이었었다. 그러나 이제 基督敎인의 수가 전 인구의 25%를 넘는 지금에 와서는 敎會는 敎會의 진정한 모습을 잃고, 社會改革의 主體가 아니라 對象이 되고 있는 悲劇的인 現實을 맞고 있다. 다른 宗敎에서는 이미 CATV 業體가 確定되었지만 유달리 基督敎만큼은 聯合도, 讓步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일차 발표에서는 留保된 상태에 신문마다 부끄러운 醜態를 보이며 성명전과 싸움과 誹謗을 벌이며 勢를 과시하고 있다.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닌가? 韓國敎會의 急成長에는 肯定的인 面도 많지만, 否定的인 要素들도 너무 많다. 韓國敎會, 무엇이 問題인가?

무엇보다도 (1) 지나친 成長競爭으로 인해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들을 너무 많이 해 왔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대부분의 聯合運動이 失敗하고 있다. (2) 敎會指導者와 敎人들의 倫理的, 道德的인 純潔性에 흠을 내는 많은 事件들이 발생하고 있다. (3) 資質있는 敎會 指導者들이 부족하다. (4) 急變하는 文化에 適切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5) 敎會 指導者의 指導力 및 資質不足과 (6) 異端宗派에 대한 적절한 聯合對策의 不足도 커다란 問題가 아닐 수 없다. (7) 均衡 잡히지 않은 牧會로 인해 變質된 信仰자세, 또는 일그러진 信仰의 태도가 많다. (8) 敎會 내적인 養育프로그램의 부족과 (9) 平信徒의 훈련 부족으로부터 오는 健康치 못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10) 名分 뿐인 對 社會奉仕姿勢 또한 우리 韓國 敎會가 直面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1) 神學과 牧會의 乖離現象이 極烈하게 나타나고 있다.[4]

이제 敬虔한 한 長老님을 國家의 수장으로 세워 주신 하나님의 크신 恩寵을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이제, 敎會도 깊은 自己省察과 悔改와 自己 變革을 통해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한신대 총장 주재용 교수의 말을 깊이 銘心해야 한다. "歷史의 결정적 變革은 때가 있다. 變革이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때가 있다. 그것이 카이로스인데, 우리 社會는 이 결정적, 根本的 變革의 때를 지금 맞고 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급변하고 있는 時代를 살고 있다. 얼마나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 앞에 어떤 世界가 다가 올 것인지를 도저히 짐작할 수 조차 없다.

科學의 發達을 생각해 보면, 숨이 막힌다. 飛行機가 만들어진지 이제 불과 90여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화성탐사 로켓을 보내고 情報를 받고 있는 것이다. 페니실린이 처음 발명된 지 이제 겨우 40~50년도 안된 지금, 우리는 遺傳子의 構造를 찾아 내서 未來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3~4년 전에는 짐작도 못했던 엄청난 激變들이 오늘날 地球村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對決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3. Howard E. Butt Jr., *"The Layman as a Witness"*, Christianity Today, Vol. XIII, No. 23, 11., 옥한흠 平信徒를 깨운다(서울 : 두란노, 1985)에서 재인용.

4. 김영한 교수는 그의 글 '韓國敎會 成長이 둔화되고 있다'(信仰世界 93. 10)에서 그 둔화의 요인을 (1) 내실없는 양적 成長의 한계, (2) 牧會者, 교인들의 윤리성 결여로 인한 社會的 신뢰실추, (3) 무인가 神學校 난립으로 인한 牧會者 및 神學生들의 資質 결핍 (4) 교파분열과 교단 반목질시 (5) 經濟成長과 더불어 들어온 世俗主義 물결 (6) 시한부 종말론 등 각종 사이비 종파 (7) 社會의 예언자적 역할 외면을 들고 있다.

끝나 버렸는가? 그것만 끝나면 평화가 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더 混亂된 모습, 오히려 전보다 더 複雜微妙한 人種間, 民族間, 集團利己主義의 紛爭들이 熾熱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는 未來를 統制不能의 時代로까지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은 순간마다 달라지고 어제의 학설이 오늘은 가차없이 휴지통에 내던져진다. 10년 전만 해도 낯설던 컴퓨터라는 기계가 우리의 삶을 바닥에서부터 바꾸어 놓고 있다.

다가올 未來를 생각하면서 분명한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다가오는 世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과는 여러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世界가 될 것이다. 둘째, 舊態依然한 過去의 行態, 姿勢나 精神을 가지고는 그 어느 누구도 어느 企業이나 團體도 國家도 결코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우리는 그 未來를 준비하는데 歷史이래 가장 중요한 때, 카이로스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온 世界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國家든 기업이든 이 變化의 물결에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면 淘汰될 수 밖에 없다. 달라지는 세상에 올바로 적응하기 위해서 戰鬪的인 經營 革新, 思考의 變化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敎會도 이 점에서 例外일 수는 없다. 물론, 福音은 결코 변할 수 없다. 眞理가 時代에 따라 달라질 리도 없다. 그러나 적어도 敎會가 文化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그 복음이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 버려진 영혼들의 심령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文化의 새 옷을 준비해야 한다. 敎會 全般에 대한 새로운 視角을 가져야 한다. 建物이나 禮拜, 敎育, 傳道와 宣敎, 救濟와 섬김, 모든 次元에서 傳統的인 視角들을 再点檢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장차 우리는 어떤 世界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하워드 쉬나이더가 쓴 '21세기 敎會의 展望'이란 책 속에는 다가올 未來에 대한 10가지의 動向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敎會에 미칠 展望 중 重要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5]

1) 地域敎會에서 世界敎會로
2) 部分的인 成長에서 전반적인 부흥으로
3) 中國 : 共產主義國家에서 基督敎國家로
4) 제도적 전통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神學으로
5) 聖職者와 平信徒의 구분에서 使役者의 共同體로
6) 남성指導者 제도에서 남녀동반자 제도로
7) 世俗化로부터 宗敎的 相對主義로
8) 핵가족에서 가족 多樣化로
9) 정교분리로부터 그리스도인의 政治的 行動主義로
10) 위태로운 國家들에서 위태로운 행성으로

쉬나이더의 분석과 몇몇 韓國 未來를 多樣하게 展望하는 분들의 主張들을 근거로 韓國敎會 未來의 모습을 나름대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展望해 보았다.[6]

(1) 敎會 使役의 폭이 대단히 넓어질 것이다. 예전처럼 단순히 地域敎會의 成長과 敎會建築, 또는 전도使役 프로그램에만 매달릴 수 없는 時代가 될 것이다. 地域社會의 문제와 世界를 향한 안목이 필요하고, 敎會의 社會的, 共同體的 역할 機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5. 하워드 A. 쉬나이더, 박이경, 김기찬 역, 21세기 敎會의 전장(서울, 아가페 출판사 ; 1993), 그는 未來社會로의 동향들을 다음 10가지로 정리했다. 1) 인위적 기술에서 하이테크, 하이터치로 2) 國家經濟에서 世界經濟로 3)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4) 계급 체제에서 네트워크 체제로 5) 產業社會에서 情報社會로 6) 단기정책에서 장기정책으로 7) 제도적인 원조에서 자립체제로 8) 대의民主主義에서 참여民主主義로 9) 북부에서 남부로-인 구통계학적 變化(북미의 경우) 10) 양자택일에서 다중 선택으로.
6. 이 점에 있어 이면우씨의 'W이론을 만들자'나, 이태형의 '2000년의 韓國', 이한빈씨의 '통일韓國을 위한 경국책', 그리고 몇 개의 잡지에 기고한 이종성 박사, 전호진 교수의 글, 그리고 近着한 월간목회 11월호 '21C 한국사회의 도전과 목회전략'이란 題下의 對談이 유익했다.

이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存在의 目的과 使命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世界는 좁아진다. 교통기관의 발달과 전자통신망의 현대화는 점점 더 좁은 社會를 만든다. (2) 未來 敎會는 그저 단순하게 몇 가지로 대처하거나, 몇몇 敎會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없는 총체적인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그 어느 때보다 敎會들의 연합전선이 요구되는 때요, 일치된 목소리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聖職者와 平信徒 指導者들의 使役이 이전에 비해 그 구분이 점점 더 모호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平信徒 指導者들이 聖職者들의 使役 중 많은 部分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런 平信徒들의 牧會使役 同參을 통해서만 주님의 敎會는 健康하고 힘있는 복음의 使役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4) 얼마전까지 그렇게도 보수교단들에 의해서 主張되던 그리스도인의 社會참여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이해되고, 오히려 많은 部分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7] (5) 기존 敎會들의 牧會 형태들이 多樣하게 바뀔 것이다. 牧會의 專門性이 강조될 것이다. 특수牧會 형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家庭使役, 靑少年 중심 相談이나 敎育, 특수宣敎, 복지, 노인문제, 병원宣敎 등등의 多樣한 전문牧會 형태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6) 世俗化된 文化 속에서 敎會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8] 그 중에서 특히, 靑少年들의 宣敎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두 가지 중대한 임무를 가진다. 첫째는 文化的 變革 任務이다. (7)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들, 즉 生命尊重, 環境保存, 平和共存, 和解와 一致에 대한 基督敎的 視角 재정립과 문제 해결에 寄與할 수 있는 具體的 代案 發見이다.

7. 경제정의실천협의회 회원중 70% 이상이 基督敎인이며, 그들 중 소위 말하는 진보적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복음主義者들이 더 많다는 것은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
8. Foster는 소음과 서두름과 혼잡, 이 세 가지가 우리들의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책 Celebration of Discipline, 15. 또, 피상성(Superficiality)야 말로 우리 시대의 저주라고도 했다. 현대 문화의 특징은 이 네 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위와 같이 展望해 보면서 2,000년대를 향한 나의 牧會를 위해 다섯가지의 原理를 염두해 본다.

1) 오직 하나님께 榮光을 돌리는 목회 ---------- 牧會의 目的 (Soli Deo gloria)
2) 하나님의 나라를 擴張하는 牧會 ---------- 牧會의 目標 (The Kingdom of God)
3) 예수 중심의 牧會(Jesus, the Center) ---------- 牧會의 터
   ① 그의 成肉身(겸비)
   ② 그의 삶(順從)
   ③ 十字架(容恕와 犧牲)
   ④ 復活(勝利, 能力)
   ⑤ 主權(統治)—基礎
4) 섬기는 종의 리더쉽 ---------- 牧會의 方法論
5) 均衡

### 1) Soli Deo Gloria

敎會란 무엇인가? 덴막의 신부 Lucas Grollenberg는 '우리는 이 時代에 어떤 敎會로 存在할 것인가?'라는 글에서 말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敎會'(Church)라고 불리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큐리오스(주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뜻의 'Kuriak'이란 말의 변용이다."[9]

敎會란 무엇인가? 주님에게 속한 敎會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能力으로 섬겨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의 所有 속에서 하나님의 啓示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

9. 基督敎사상, 1984—4, 97.

랑하는 百姓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 百姓들로 하여금 그 恩寵에 응답하도록 돕는 것이되 그 응답자 속에 牧會者 자신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牧會者는 牧會의 對象에서 除外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가 예배자의 隊列에서 例外者가 되는 것이 아니며, 예배 인도자 또한 한 사람의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런 의미에서 牧會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牧會를 本質的으로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牧會를 窮極的으로 온전히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牧會의 알파요 오메가이시다. 하나님은 牧會의 對象도 아니고, 道具도 아니고 主體이시다. 牧師는 그 분이 일 하시도록 자신을 비워 드리며, 그 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通路일 뿐이다. 오직 窮極的으로 榮光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 2)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擴張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태 6:10)를 기도하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祈禱를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 속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속한 家庭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아가서 내가 속한 모든 共同體 속에서 이 나라가 이루어 지도록 희생하고 땀 흘리며 소금과 빛의 職分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場所의 槪念이 아니라 統治의 槪念이다. 하나님께서 王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王國이다. 이 나라는 꼭 이 세상을 떠나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의 삶을 사는 모든 이들과 共同體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 나라 건설을 바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옛사람을 청산해 버리고 성령의 은혜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에 매여서 살



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王國이 擴張되어 가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것이 牧會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目標요, 牧會의 窮極的인 目標이다.

### 3) 예수 중심의 牧會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떠나서는 存在의 價値도 目的도 없는 사람들이다. 라틴어 Credo-'나는 믿는다'는 말은 그 글자 그대로의 뜻이 '心臟을 내어 준다'는 뜻이다.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그 心臟이 창에 찔려 파열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뜨거운 心臟을 드리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 心臟이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心臟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心臟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라디아 2:20).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제 죽은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다. 神祕로운 信仰告白이다. 이 信仰告白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聖徒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信仰生活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中心일 수 밖에 없다. 敎會는 그 분을 떠나서는 存在할 수 없다(요한복음 15:5). 그 분은 우리의 닻이요, 방향타요, 나침반이요, 북극성이요, 선장이시다. 그 분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예수 중심의 삶을 창조하는 목회가 예수 중심의 목회다.

### 4) 섬기는 리더쉽-牧會의 方法論

쉬나이더의 지적처럼 다가올 未來는 聖職者와 平信徒의 구분이 사라지고 함께 使役하는 共同體로서의 敎會의 모습이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 틀림없다. 지난 과거의 權威主義적인 탈을 과감하게 벗고 새로운 생동력있는 敎會로서의 機能을 되찾아야 한다. 마가복음 10:45이야말로 예수께서 사신 길이요, 우리가 좇아가야 하는 길이다. 이 길을 버리면 우리는 宗敎改革 당시의 부패했던 카톨릭敎會의 偶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야 말로 平信徒의 만인제사장직에 대한 깊은 통찰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서의 메시야상(이사야와 마가복음에서 제시된)에 대한 깊은 묵상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權威는 결코 겉모습이나, 틀에서 또는 관습이나 전통에서 오지 않는다. 權威는 本質에서 우러나온다(權威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εξουσια***로 '본질로부터 밖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다). 주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 어떤 랍비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더 權威가 있었다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섬기는 종의 權威, 섬김으로 오히려 다스리는 권세를 온전히 배우고 實踐하는 牧會가 필요하다. 동역하는 아름다운 섬김 共同體를 만들어 가는 敎會가 되어야 하겠다.

### 5) 均衡－牧會의 틀

均衡은 牧會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知性과 感性, 意志가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神學의 健全한 基礎 위에서 뜨거운 靈性訓練과 社會共同體를 향한 責任있는 삶이 均衡을 잡아 健康한 敎會를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가 하면 바빙크의 지적처럼 敎會의 두 가지의 機能, 즉 有機體로서의 敎會와 組織體로서의 敎會가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머리되신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몸되어 유기체적으로 살아가는 共同體가 敎會이기에, 敎會는 필연적으로 역동적이고 사랑의 교제와 생명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며 가족과 같은 친밀함과 섬김과 고백이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敎會는 하나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機能的 組織體이기에 필연적으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위한 여러가지 구조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반되는 듯한 양면성이 均衡을 이룰 때에만 健康한 敎會는 이루어 질 것이다.[10]

또, Schaeffer가 지적하는 두 가지(가시적 敎會의 ① 純潔性과 ② 구체적 사랑의 實踐)가 균형적으로 나타나야 하리라 생각한다.[11]

### 6) 敎會實踐方向

本質的으로 牧會의 세 分野를 의식하면서,

1) 복음 선포(케리그마)
2) 교제(코이노니아)
3) 섬김(디아코니아)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實踐方向을 세워 본다.

(1) 敎會 指導者 訓鍊

牧會者 自身의 靈性管理[12]

平信徒－

信仰成熟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奉仕의 專門化

구역活動의 활성(순모임)

1인 1奉仕

(2) 敎育

---

10) 이들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 제도주의(institutionalism)의 위험이나, 또 實用主義에 빠지게 된다.
11) Francis A. Schaeffer, *The Church before the watching World.*
12) 이 점에 있어 E. H.의 *Working the Angles*에서 지적한 대로 세 가지의 것, 기도와 성경과 영적인도(Spiritual Direction)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각 敎育기관, 교사敎育
平信徒 敎育
敬拜와 讚揚
말씀사랑

(3) 宣敎
부산시 복음화－文化的 宣敎정책
學園宣敎
해외宣敎
農村敎會 支援

(4) 地域傳道
傳道의 多樣化

(5) 敎會建築
機能的인 建築
文化的 空間(地域社會 文化變革을 위한)
섬김을 위한 空間(도서관, 宣敎관, 地域주민들을 위한 奉仕관)

(6) 奉仕－和解와 一致
구제와 자원奉仕 活性化
자매결연을 통한 섬김 具體化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봉사

이들 중에 특히 다음 몇 가지에 力點을 두어 推進코자 한다.

① 平信徒 奉仕의 專門化를 가져오는 牧會를 하려 한다. 단순히 행정과 政治에만 치중해서 영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指導力을 상실해 가는 敎會指導者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들의 영적 專門分野를 계발해서 具體的으로 奉仕하도록 도울 것이다. 성령께서 주신 敎會를 섬기기 위한 은사들을 깨닫게 하여 어떤 이는 家庭生活相談 使役을, 어떤 이는 靑少年敎育 문제 전담을, 어떤 이는 장애인 專擔使役을, 어떤 이는 危機相談 使役을, 또 어떤 이는



文書宣敎와 시청각 宣敎使役 등등으로 奉仕의 專門化를 이루고 싶다. 이제까지 우리 敎會들은 구멍가게식으로 이것 저것 조금씩 이름만 걸어 놓았다. 大部分이 牧會者 혼자의 머리 속에서 계획이 짜여져서 진행이 되되 平信徒들의 大部分은 그 일에 同參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들의 연구와 적극적인 活動과 기도를 통해서 牧會者가 미처 보지 못하는 分野들을 힘써 活動하도록 격려하여야 하겠다. 牧會者들은 그 모든 分野의 活動들이 단순한 이벤트성 活動이나 業積主義에 흐르지 않도록 그 모든 目的과 섬김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도록 그 奉仕者들의 영성과 섬김의 자세들을 격려하고 도울 것이다.

② 모든 회중을 成熟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養育시키도록 노력하려 한다. 전교인 큐티생활화, 적어도 한 과목의 성경공부는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교인 제자화 敎育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다섯 가지 영역은 모두 實踐하도록 격려 훈련하려 한다(祈禱, 말씀, 傳道, 奉仕, 섬김). 기존 프로그램(사순절 행사, 통독성경읽기, 새벽기도회, 크로스웨이, 전도폭발 등)에 일대일 양육, 새신자 양육훈련, 전도학교, 기도학교, 큐티훈련학교, 신구약성경공부반, 주제별 성경공부반, 책별성경공부반, 교리별공부반, 제자반, 목자반 등을 추진할 것이다.

③ 부산의 文化的, 宗敎的 特殊性을 勘案해 보면 단순한 宣敎전략만으로는 宣敎하기 힘들다는 것을 발견한다. 부산은 강한 불교文化圈에 속해 있어 미신이 강하고 아주 배타적이다. 이 점에서 文化的인 宣敎 접근이 없이는 참된 宣敎의 효과적인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 각종 文化的 宣敎전략을 계발하고 거기에 주력할 것이다. 새로 건축하는 敎會 안에 다음과 같은 文化空間을 가지려 한다. 圖書館, 젊은이들을 위한 小劇場과 만남의 장소, 演劇 公演場 등등, 시설을 갖추고 각종 세미나와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통해 간접적인 宣敎를 이루어 갈 것이다. 청년 중심으로 이루어진

찬양팀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본 敎會는 地理的으로 부산시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교통면에도 便利하다는 利點이 있다.

④ 社會奉仕의 專門化를 추진하려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연회를 위한 宣敎館을 대여하되 수동적으로 보다는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積極的인 봉사로 지역사회 속에 있어 일하는 敎會가 되도록 하려 한다. 地域住民들을 위한 平生敎育의 장으로 敎會를 열 것이다.

⑤ 장애자들을 위한 空間을 만들려 한다.

⑥ 본 敎會 주변에는 많은 학교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敎會 안에 學園宣敎 전담직원을 두어 學園복음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⑦ 현대의 가장 특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로 특수한 영역에서의 使役을 담당할 것이다. (1) 家庭생활, (2) 직장생활, (3) 靑少年 相談사역 (4) 노인문제 사역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관들을 만들어 일하고자 한다.

⑧ 세계宣敎를 향한 꿈

韓國敎會는 世界를 향해서 눈을 떠야 한다. 작게는 환태평양 宣敎에 크게는 全世界를 향한 宣敎的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구촌이란 이름이 함축하고 있듯이 우리의 視野를 넓혀야 할만큼 좁아진 世界 속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본 敎會는 대만에 中國人 敎會인 옥리敎會와 日本의 오오사카 敎會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또 마카오의 中國人 敎會를 支援하고 있으며, 94년부터는 中國 연변기술대학과 협력해서 북한宣敎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려 한다. 또한 성경번역宣敎師로 카자흐공화국에 宣敎師를 파송하고 있다. 1차적으로 中國, 일본과 구 소련을 제차적으로 좀더 확대해서 세계 宣敎를 꿈꾸며 인재들을 養育하고 일할 것이다.[13]



## 6. 맺는 말

결국 牧會란 무엇인가? 순간순간 牧會의 主體이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앞에 順從하는 決斷의 行爲이다. 항상 잊지 않으려 努力하는 말씀은 '마음의 經營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應答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잠언 16:1)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計劃할지라도 그 걸음을 指導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9)이다. 내가 만든 어떤 틀을 絶代化 하지 않으면서도 일관성이 있고 歷史의 主人이 되신 하나님 앞에서 매순간의 正直한 決斷으로 주어진 이 길을 가리라 決心해 본다.

---

13) 전 국무총리였던 이한빈 박사는 그의 '변하는 世界와 韓國敎會의 使命'이라는 글에서 식민지의 時代를 지나 이념대결의 時代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 바야흐로 '자리의 時代', '시장의 세기'로 진입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는 韓國敎會의 未來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① 일본敎會와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긴밀한 대화의 통로를 열어야 한다. 원한 관계가 많지만 전 유럽인들 중 프랑스, 독일, 英國 등이 깊은 원한 관계가 깊이 얽혀 있지만 다 털어 버리고 함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바라 보면서 이런 새로운 삶의 형태인 국제감각을 우리도 빨리 익혀 이웃나라와 함께 살아가기를 배워야 한다. '이런 變化를 가져 오자면 무엇보다도 敎會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사랑을 원리로 하는 宗敎가 아니면 해소하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韓國의 基督敎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② 中國과 中國宣敎에 대하여도 더 깊이 생각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世界 인구의 1/4을 점하는 최대宣敎대상국을 우리 옆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200만의 동포들을 살려야 하며 그들을 통해서도 宣敎의 귀한 歷史를 이루게 될 것이다.

③ 러시아 宣敎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장 큰 난관은 그들의 정신적인 공백이다. 일찌기 솔제니친이 갈파한 바 같이 저 百姓이 입은 유물사상의 해독을 용애해주면서 저 나라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자비와 사랑을 實踐하는 宗敎인 基督敎 밖에는 없게 되었다.'